



오늘의 날씨와 생활

2월 27일 월요일 음 2월 8일 (조금)

특별기고

기상정보

맑음



제주는 맑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2-5℃로, 낮 최고기온은 11-13℃로 예상된다.

Table with 3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오후. Rows show 0% precipitation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해질. Rows show sunrise at 07:06 and sunset at 18:28.

식중독지수 관심, 감기가능지수 관심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5/16℃, 모레 흐림 10/12℃

월드뉴스

후쿠시마 어민들 “오염수 방류 반대”

방류 시설, 6월 중 완공 예정

일본 정부가 올해 봄이나 여름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현지 어업인들이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내에 오염수 탱크. 연합뉴스

후쿠시마현 어업인들은 25일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열린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과 의견 교환회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다고 도쿄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어업인들은 “우리는 해양 방류에 대해 이해하지 않았는데 ‘봄이나 여름쯤’이라고 방류 개시 시기를 제시한 것은 무슨 일이나”고 분노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노자키 데쓰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원전을 담당하는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에게 “우리는 후쿠시마현에서 어업을 계속하고 싶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어업인들은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물의 이미지 악화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한 공사를 지난해 8월에 시작해 오는 6월쯤 끝낼 예정이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조남운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제 우주는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은 이미 고급 승용차 정도의 값을 내면 대기권 밖에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도민 믿음이 모여야 제주 우주산업 꽃피울 수 있다

심인 제주는 성장 동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우주산업이야말로 제주에게 기회다.

하지만 과거 제주는 우주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한 번 놓친 적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2000년경 제주는 가장 유력한 우주센터 건립 후보지였다.

그렇지 않다. 그동안 우주산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뉴 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우

우산업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국가 중심의 우주산업이 이제는 경제성을 노리는 민간 우주기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제주는 여전히 전파 송수신과 발사 조건 환경에서 매우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모든 저궤도 위성은 앞으로 제주에 위치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에서 담당하게 된다.

제주는 이 기회를 어떻게 살려야 할까? 우선 위성정보를 제주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준비해야 한다.

타트업 기업들이 제주에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혜택을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한다. 제주대학교는 우주인재를 기르기 위한 융합교과과정을 만들어 우주인재 양성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이다. 제주와 인연을 맺고 있는 스타트업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발판으로 우주산업 관련 기업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파악해 가장 매력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그것은 제주가 뉴 스페이스의 메카가 되기 위한 첫걸음일 것이다.

열린마당

외양간 고치고 소를 지키자



송상현 제주해양경찰서 수색구조계장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나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좌초 선박사고는 침수, 전복, 침몰, 유류오염으로 연계된다. 특히 좌초 선박에서 유출되는 기름은 마의 공동어장과 해수욕장을 오염시켜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위험성이 크다.

항 부주의가 대부분으로 차귀도, 비양도 등 주변 저수심 해역에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전문구난업체가 없는 제주 실정상 선박사고 발생 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제주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간해양구조대와 제주해경이 선박구조 활동을 포함한 인명구조, 유류 오염방제 활동 등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 활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양경찰은 신속한 대응을 강조해 대응 능력 확대에 주력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취약 해역 관리 및 안전 점검, 홍보활동 등 사고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더 견고히 한다면 안전이라는 소를 잃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린, 레드, 화이트 바이오산업 일타 학습



한진호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성장과

바이오산업은 생물체를 바탕으로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유익한 제품 생산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흔히 그린, 레드, 화이트 바이오로 분류한다.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분야는 그린바이오이다. 이는 식물의 색소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바이오 기술이 식물 종자개량, 생물자원 활용 식품 등 신소재 개발에 응용된 것으로 미래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중요한 분야이다.

레드바이오는 혈액의 붉은색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명공학 기술이

질병치료, 신약개발 등 의약학 분야에 응용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빠른 성장과 함께 바이오 선진국 간 기술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이기도 하다.

플로 화이트바이오는 생물자원에 미생물 등을 이용해 친환경 에너지나 산업소재를 생산하는 분야이다. 화이트바이오 제품은 화석자원 기반 제품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적고 자원분해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제주지역은 주로 그린바이오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지만 최근 제주 도정은 미개척 분야인 레드바이오와 화이트바이오로 산업영역을 넓히기 위해 전문가 자문, 선도기업 미팅 등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어 우리 후세대들은 청정한 환경 속에서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Large advertisement for court auction of real estate. Includes title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a table of properties with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Jeju District Court.

Advertisement for Sorisem digital insurance. Features a man in a suit, the Sorisem logo, and text: '잘 안들리십니까?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와 함께 하십시오.' Includes contact info: TEL. 753-5347.